

훈련장 확장 철거주민 강력반발

주민들, “집단 이주 정착지 마련해 달라” 호소 군부대, “법에 의한 최대한 보상조치 취하겠다”

국내 유일의 공지합동 승진훈련장 확장과 관련해 철거 통보를 받는 주민들은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9월 30일 1면 보도)

철거대상 주민 대책위원회와 이동면 주민 100여명은 지난 1일 승진훈련장 입구를 봉쇄한 채 오전 9시부터 군부대 측의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50여년간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피해에 시달려 왔는데 확실한 이주대책 없이 철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분한 이주대책이 없는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또 “국방부와 군부대가 철거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철거시키려고 하는 처사에 울부짖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민들은 포천시에 대해 “힘없고 서러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이주대책을 경기도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해 승진부대 인근 도유림을 이용한 집단이주촌 마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대책위원회 김승규 위원장은 “승진훈련장은 무려 600만평이 되는데 힘없는 화전민의 삶을 빼앗아 가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국방부가 승진훈련장에 안보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軍관계자는 “철거대상 지역은 국방부 중기계획에 의거 98년 매입한 부지”라고 말하고 “중기계획이 2005년 예산이 반영되어 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 “철거대상 민가들은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 관련 군부대 측은 지난 6일 8시간 사단장실에서 민가이주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일 승진훈련장 확대로 인한 철거대상 주민과 이동면 주민 100여명은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훈련장 입구 도로를 봉쇄하고 집회를 가졌다. 또 이와 관련해 군부대 측은 8시간 동안 주민들이 참석하는 민가이주 주민설명회를 지난 6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복진 8사단장은 김승규 주민대책위원장의 현 사업의 목적 등에 관한 질문에 “승진훈련장 주변 철거에 대해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가이주 대책마련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상급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단장은 또 훈련장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사격장을 확대하

려는 것이 아니라 사격훈련을 위한 집결지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훈련여건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각자 지급하려고 한다면 주민들은 단 한 사람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가지 철거대상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확실한 정착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⑬

가산면 금현리 이장 이상호

“장수마을의 명예회복 해야죠”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는 가산면의 평야지역 중 하나로 마을이 전부 평야지대에 속하고 있어 과거 ‘내베기’란 이름으로 불리다 최근까지는 ‘평촌동’으로 부르던 마을이다.

또 금현리 신변지역에는 포천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학자인 조선시대 선조 때의 문신 백사 이항복 선생의 사당이 모여져 있는 마을로 유학자들이나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곳이다.

금현리는 사방이 다른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동쪽으로는 우금리와 금현3리, 동남쪽으로는 금현2리, 서쪽으로는 가산리, 북쪽으로는 금현4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40여개의 가구와 섬유공장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교통에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군도4호선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5월이면 교통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주민은 모두 150여세대 400여명으로 아직은 원주민의 분포가 높아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이 원주민이지만 주민들의 융화와 화합이 잘 되고 있다.

금현리에서 태어나 최근 3년간 이장을 역임하며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상호(56) 이장으로부터 마을의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마을의 조직은 노인회(회장 이상덕), 새마을지도자(민병철), 부녀회, 청년회(회장 이성희), 6개반 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 개발위원회가 조직됐다.

마을 조직은 말은바 소임을 다하면서 크고 작은 마을행사에 나름의 몫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연초에는 청년회가 주축이 돼 10여년 전부터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율농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청년회가 주축이 된 어버이 날 행사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여행 또는 온천목욕 등의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마을에서는 마을회 주관이 된 여름철 복불이, 가을 추석맞이 위안의 밤 노래자랑, 겨울철 대동호 등 마을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이 이장은 “특히 올해부터 추석맞이 위안의 밤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는데, 남녀노소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뜻 깊은 자



이상호 이장
가산면 금현리

리로 앞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넓은 평야로 인해 50%정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대부분 농사 등 시설채소 및 인삼농사를 짓고 있다. 그 외는 소수가 임대업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마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청년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청년회원들이 30~40명선으로 감소하는 등 20여년 이상 유지되던 조직의 활성화가 미약한 것이 안타깝다는 이 이장.

“가산면 전체에서도 우수한 청년회원들의 활동이 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년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조직이 활성화되길 주민 모두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회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을 때 마을의 어른들은 이들을 믿고 맑은 공기과 물 속에서 장수하는 마을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이장은 “노인회가 전체 60여명인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50명을 넘고 있다”며 “몇년전까지만해도 100세와 95세 노인이 생존했었다”고 밝혔다.

이러 “최근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서 등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장수마을의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것 같아 회복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현천에 대해 항상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 이 이장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불안한 몇몇 하천제방이 있는데 예방차원의 공사를 촉구하며 예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정은 생명 잉태하는 성스러운 공간”

임희동 법원장 ‘어떻게 사나’ 주제 양문감리교회 특별강연



지난해 12월 야생동물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를 상정했던 김종용 포천시의회의원과 이문근 관민면장, 종민 김옥성 이장이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눈을 살펴보고 있다.

임희동 포천시·철원군 법원장이 ‘어떻게 사나’라는 주제로 지난 9일 양문감리교회에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법원장은 “복된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이 있는 가정은 진정 복된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행복이란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가족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에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의 조건을 임 법원장은 “사람이 있는 가정”이라면서 “사람이란 가족들이 관심과 존경 그리고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다”고 역설했다.

또 세 번째 조건을 오늘날 내일의 소망에 있다고 강조한 임 법원장은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역할이 애매모호 해지고 있지만 남편의 진정된 모습은 가정의 울타리 역할에 있고, 즉 가정의 하드웨어 역할, 부인의 역할은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을 가꾸어 가는 역할, 즉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에 있다”고 말하고 “서로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지만 남편과 부인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뿐으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고 이상적인 부부상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임 법원장은 “학교 재학시절 공부를 열심히 고시에 합격은 했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다”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도 마찬가지로”면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일이든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고,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며 마음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혼하려고 법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부간에 있어서 자기위주로 생각하면 부부싸움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멧돼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 심각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연내 기준안 마련

최근 포천시 관인면, 신북면 일대에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 노루 등이 산에서 내려와 농작물을 크게 망쳐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4일 관인면 중리 강옥성 이장은 관인면 지역에 지난 3년전부터 멧돼지에 의한 벼와 콩, 옥수수 등의 피해가 나타나더니 최근에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마을 인근의 논·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멧돼지의 경우 추수철인 요즘 논을 헤집고 다녀 벼수확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벼를 망쳐놓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땅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31일 포천시의회 김중용 의원이 발의해 포천시아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지난 2월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앞의 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피해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개정절차가 들어가 올 연말이나 법안이 통과·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내용 중 조례 제13조 피해보상을 살펴보면 현재 ①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보상금은 최고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며,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육단계에 대한



지난해 12월 야생동물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를 상정했던 김종용 포천시의회의원과 이문근 관민면장, 종민 김옥성 이장이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눈을 살펴보고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70~50%까지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민들은 피해 즉시 해당 관공서에 신고해 위원의 등을 거쳐 적절한 보상절차를 밟으면 된다.

현재 포천시는 야생동물의 잦은 출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피해방지를 위해 연인원 100여명의 협사에게 수렵허가를 내 주고 총 45회 출동 해 40여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최근 관인과 영북지역에는 야간수렵허가까지 내 주면서까지 수렵허가를 내 주고 있으나 실제로 협사들이 사냥하는

멧돼지 개체가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지역의 번식 개체를 억제하기 위해 겨울철 수렵 허가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멧돼지 사냥 등 수렵과 야생동물보호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며 농작물 보호를 위한 개체 억제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기 철조망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피해 방지시설소요예산 22억을 내년예산으로 요청해 놓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주) 오리표 (싱크) 주방가구

싱크대, 불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취급!!!

인간중심의 부엌문화를 창출하는 “오리표 주방 가구”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 설계 무료 A/S를 상담하여 드립니다.

